



국난(國難)의 방관자(傍觀者)들

근세 중국이
망해갈 때 중국의
지식계급(知識階級)들이
나라가 망해가는 것을
보고도 방관(傍觀)만
하고 있었다.

이것을 보고,
사상가 량치차오
(梁啓超 1872~1923)가

그의 문집
'음빙실 문집(飲氷室文集)'에서
방관(傍觀)하는
지식계급(知識階級)을
여섯 부류로 구분해서

"방관자(傍觀者)를
꾸짖노라!"라는 제목으로
설파했다.

다음 글은 그 내용을

요약(要約) 한 것입니다.



1. 혼돈 파(混沌 派)

마땅히 자기들이
해야 할 일을 모르는
'배운 무식꾼
(the learned ignorant)'의
무리.

끓기 직전의 냄비 물에서
봄날의 따스함을 느끼는
물고기 신세.

불붙은 제비집 안의
제비가 날이 밝은 줄로
아는 것 같은
혼돈 파(混沌 派).

세상(世上)
물정(物情) 모르고
교과서(教科書)만 외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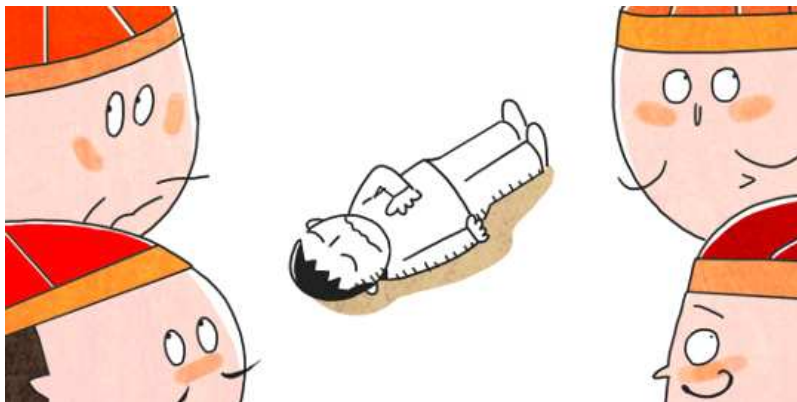


2. 위아 파(爲我 派)

벼락이 떨어져도
들고 갈 짐만을 꾸리는
무리들.

나라가 망해도
나만 살면 된다는
자(者)들.

옳고 그름보다 단기적
손익계산(損益計算)에
밝은 먹물들이
위아 파(爲我 派).



3. 오호 파(嗚呼 派)

한탄과 한숨만 쉬고
통곡만 하는 자(者)들.
입으로 만
모든 일하는 자(者)들.

실천력(實踐力),
행동(行動),
추진력(推進力),
용기(勇氣)가
부족한 나약(懦弱)한
지식인(知識人)
부류(部類).



4. 소매 파(笑罵 派)

남의 등 뒤에서
냉소(冷笑), 욕설(辱說),
비평(批評)만
하는 자(者)들.

대안(代案) 없는 비판,
비판을 위한 비판(批判)과

놀부 심뽀로
조롱(嘲弄)하는
소매 파(笑罵 派).

5. 포기 파(拋棄 派)

자포자기(自暴自棄)를
하는 자(者)들.
남에게는 기대를 걸면서
자기는 아무것도
할 수 없는 자라고
생각하는 자(者)들.

"내가 나서지 않아도
누군가가 하겠지"라고
변방(邊方)을
맴도는 방관(傍觀)
지식인의 부류(部類).



6. 대시 파(待時 派)

항상 때가 안 됐다고
이유를 대며
방관(傍觀)하는 무리들.

위선자(僞善者)들로서
방관자(傍觀者)들 중

가장 간교(奸巧)한
먹물들이
대시 파(待時 派)
이다.

나라(國)가 망해가는 데
방관자(傍觀者)들만
득실거린다.

좌파들은
이런 우파들이 지쳐
나자빠질 것을 알고
웃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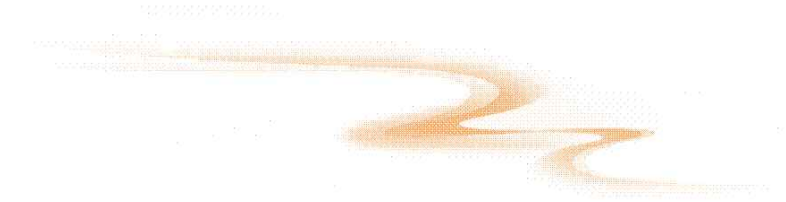


자신(自身)에게
질문(質問) 해 보세요.

♠나라(國)를
세우는 데는 천 년의 세월도
부족하지만

나라(國)를
멸망(滅亡)시키는 것은
한 시간이면 족하구나. (...)

? 옮긴 글 ?



우리 벗님들~!
健康조심하시고
親舊들 만나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
餘裕롭고 幸福한
나날 되세요~^

